

금요 수필

괄약근의 비명, 그 익살스러운 탄성

인간이 경탄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헌법 조항이 아니라, 누구나 하루에 서너 번에서 끝내는 열 번 이상 엉덩이 사이로 '가스'를 내뿜는다는 사실에 있다. 성인군자도, 절제가신도, 대동령도 이 대장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사형리는 필터를 거치던 갑자기 '수치'와 '비극'의 영역으로 탈바꿈한다.



신영규 전북 수필과 비평 작가회의 회장

얼마 전 전주 효자동 인도를 걸다 마주친 그 남자를 잊을 수 없다. 내 앞 10미터 전방, 그는 마치 직진을 향해 직격하는 병사처럼 씩씩하게 걸더니 갑자기 "부르릉!" 하고 연사(連射)를 날렸다. 마치 파발축을 갖기는 듯한 경쾌한 리듬감. 그는 눈썹하며 뒤를 돌아보고는, 나의 눈이 마주치자마자 부끄러운 듯 있던 볼수 그드로 전환해 마른 짝 사리졌다.

그 뒷모습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삼켜며 나는 생각했다. '저 가스는 그의 체면을 뚫고 나온 자유의 외침이었을까?' 문득 과거 어느 호텔 세미나장에서 다루웠던 중년 신사가 떠올랐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던 내 귀를 때린 것은 "똥~ 똥!" 하는 기대한 굉음이었다. 과장이 아니라 K9 자주포가 불을 뿜는 듯한 위용이었다. 그러고도 그는 태연자약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향문이 스파커라도 된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방귀 소리도 여러 가지다. 단순히 가스의 압력만 아니라 배출 속도, 향문 괄약근의 긴장도, 그리고 향문 주변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부웅', '뽕', '부르', '부드르' 등 다채로운

음향의 향연이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세등등한 소리는 단연 '부우웅~'이다. 이는 장내 가스가 좁은 항문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탈출할 때 터져 나오는 함성이다. 특히 향문 괄약근이 잔뜩 긴장해 봉로가 좁아진 상태에서 가스가 몰아붙이면, 주변 피부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소리는 더욱 우렁차다.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으르렁 소리를 내는 이 방귀는 주로 식사 중 활개 삼킨 공기(질소,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다. 소리는 원동차처럼 크지만, 나행히 그 속은 텅 비어 있어 냄새는 덜한 경우가 많다.

반면, 소리가 수줍게 새어 나오는 것은 '괴상'이다. 괄약근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가스가 순조롭게 빠져나오면 소리는 거의 나지 않는다.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적어 진동을 일으킬 힘조차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조용한 습격자를 조심해야 한다. 소리가 작은 방귀는 대장 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황화수소 등이 응축되어 현현히 나오기 때문에, 소리는 경순할 지언정 그 냄새는 코를 찌를 듯 고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심은 여성들의 방귀 소리다. 여성들은 신체 구조상 괄약근의 탄력과 골반 구조의 차이 때문인지, 소리가 대체로 '삐잉~' 하고 얇고 높게 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좁은 틈 사이를 빠져나가는 가늘은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리지 않으려는 작은 새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부웅' 하는 남성 의 대표 소리에 비하면 작으로 정갈하고 조심스러운 소리지만, 그 '삐잉' 하는 가느다란 고음 뒤에 숨겨진 냄새의 농도만큼은 그 누구도 정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 평등한 '가스 배출권'도 여성이라는 성별의 틀레를 쓰면 훨씬 가혹한 검열대에 오른다. 몇 년 전, 요양보호사 교육장의 쉬는 시간이었다. 한 여성이 장의식 뒤편에서 경직된 몸을 돌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던 중, "부웅!" 하는 명랑한 소리가 성적을 깼다. 순간 그녀의 얼굴은 활이든 홍탕무처럼 달아올랐고, 여객 승무원 하더니 간곡 주변 동료들에게 사죄하듯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은 "생리 현상인데 그게 무슨 흥이냐"며 웃어넘겼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수치심의 잔상이 짙게 서려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방귀는 일종의 '신비주의의 파괴'로 간주된다. 이슬판 먹고 살 것 같은 아까씨가 공공장소에서 가스를 배출하면, 주변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가워진다. 만약 뉴스 진행 중에 여자 앵커가 큰 소리로 방귀를 뀌다면 아마 그 영상은 '과제'되어 영영히 인터넷 세상을 떠돌며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방귀는 남녀노소 평등하게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지탄은 유독 여성에게 더 과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방귀는 짐직한 생물학적 신화다.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적절한 배구려진 화학적 산물일 뿐이다. 장내 세균이 광합성이 부지런히 일했다는 성실한 증거이자, 내 몸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비릿하고도 확실한 생선 신호인 셈이다. 만약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스를 방출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인간의 타운 쓴 기계이거나 생리 리듬이 멈춘 존재일 터다. 미물인 집승조차 때가 되면 가스를 내뿜어 몸의 평화를 찾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생리 현상에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가끔은 효자동의 그 사비처럼 시뒀하게 때때를 갖기도, 가끔은 K9 자주포 소리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신영규 수필가는 1969년 월간 '문예사조'와 1997년 월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해 시·수필·칼럼을 쓰고 있다. 시집 '수필집, 칼럼집 등 총 8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과 순수필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사설

전 세계 물들인 'K'

대한민국 소비재 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K푸드와 뷰티 등은 앞세운 'K이니셔티브' (Initiative·주도권) 전략은 세계 주요 시장을 'K' 열풍으로 물들였다.

지난해 K푸드 수출 실적은 136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은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K뷰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푸드·패션·뷰티·리테일 등 주요 소비재 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소프트파워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K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K이니셔티브 효과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K푸드 만

형인 CJ제일제당은 식품사업 매출은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했다.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11조5,221억원인데, 이중 해외가 5조9,24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심은 미국과 유럽에서 주력 브랜드 '신라면' 판매고를 늘리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40% 가까이 끌어올렸다.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2조원을 넘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해외에서 매출 비중 80%를 기록중이다. 오리온도 지난해 매출 3조3,324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의 60%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다.

K패션·뷰티도 마찬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매출 4조 클럽에 복귀했는데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한 효과다.

전북 근대미술의 권영술 화백

전북 지역 근대 서양화단을 대표하는 1세대 작가 권영술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소장품전이 열린다.

우진문화재단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권영술 화백의 유작 26점을 공개하는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전북 근대 서양화단 형성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기회으로, 지역 미술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 권영술 화백의 예술세계를 집중 소개했다.

우진문화재단은 현재 권 화백의 유작 15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자체 기획전과 전북도립미술관·전주문화재단·완주문화재단 등 대외 전시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공개해 왔다.

김보라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동한 원로·작고 작가들의 작품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두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권영술의 화면에는 농촌 풍경과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가난하지만 소박했던 시대의 기억을 담아내면서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 속에 깊은 공간감을 형성하고,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색채로 서정적 미의식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권영술 화백은 전북 완주군 이서출생으로 서울경신고보 재학 시절 스승 도상봉 화백의 권유로 동경 미술학교에 입학해 1943년 졸업했다. 같은 해 동경도립미술협회전에 입선하며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았다.

귀국 후 식민지 문화정책에 회의감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45년 군산중학교를 시작으로 1980년 신대인중고까지 36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지역 미술 발전에 헌신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3월 신학기는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실행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는 학교생활이지만, 이 시기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최근

신학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에는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초기 예방이 중요하다. 친구를 존중하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거나 방관하기보다는 주변 어른이나 학교에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하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학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때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유혜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내 : 외 기고는 본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a wavy sea under a full moon. The text includes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ity that provides courage and hope) and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more, a newspaper with readers). It also lists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accurate news, supporting local development, and being a platform for voices. At the bottom right, it says '전주매일' (Jeonju Maeil) with the tagline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Human-centered · Moral-centered · Local-centered).